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 새보람

SAEBORAM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www.kappd.or.kr

제229호

2011년 10월

2011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



## 제11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National Conven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 일 시 : 2011년 11월 11일(금) 14:00

■ 장 소 : aT센터(서울 서초구 양재동)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법인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 후 원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KBS



10월 7일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목동주경기장에서 열린 「2011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에서 만여명의 회원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운 모습.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10월 7일(금)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목동주경기장에서 「2011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국내 최대 장애인당사자단체인 지장협의 전국 임직원 및 회원 간의 상호 화합과 '장애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 협회 임직원 및 회원, 자원봉사자, 진행요원 등 만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또한 홍준표 한나라당대표, 이정선 장애인위원장(한), 심재철 의원(한), 정하균 의원(미래), 정범구 의원(민), 이상민 의원(자),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등을 비롯한 30여명의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이날 대회를 통해 "과거에 대한 자성이 없이는 미래에 대한 발전은 없다"며 "지장협은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변화로서 계속 전진하고 발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체육행사를 통해 용기와 자신감을 키워 '발

전하는 지장협',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땀 흘리고 전진하자"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는 축사를 통해 "장애자녀를 키우며 장애인이 좀 더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장애인이 더 당당하게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일만 하면 안 된다. 일자리, 이동 권리, 교육 등 장애인정책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음 한 일이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이라고 말하며 "장애인이 더 당당하게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함께 정책을 연구하고, 기회를 더 늘리는 세상을 만들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회는 개회식, 이벤트 프로그램(축하공연, 장기자랑 등), 체육경기, 시상식,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고, 체육경기에서는 단체줄다리기, 육상 400m 릴레이, 휠체어 400m 릴레이 등을 비롯한 다양한 경기가 실

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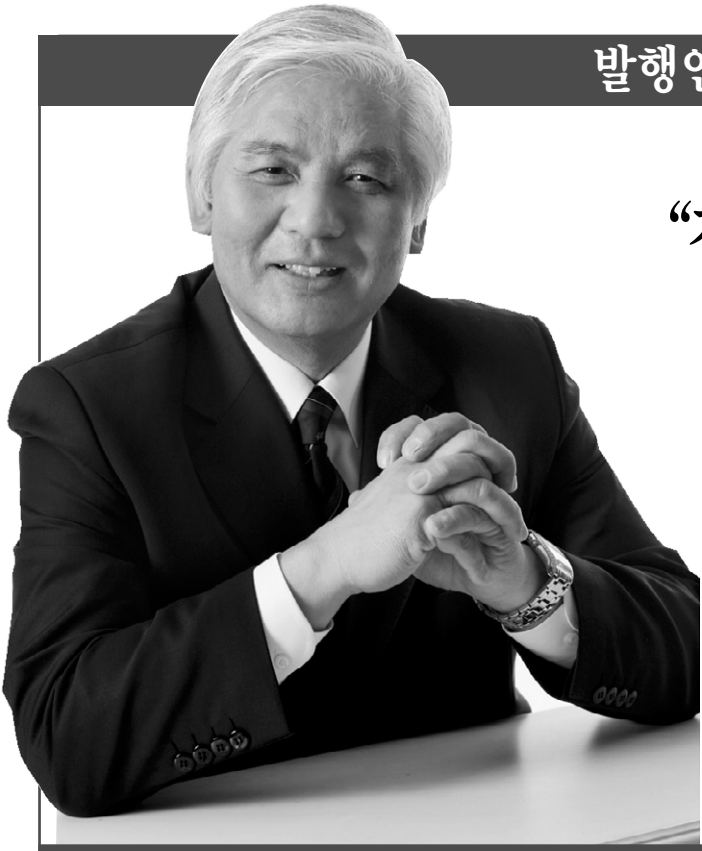
또한 이날 대회를 통해 지장협의 대외협력위원으로 위촉된 배우 양현태, 민지영, 배정아에게 위촉패가 수여됐다.

한편 대회 결과 영예의 '종합우승'은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에게 돌아갔고,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와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응원상은 충청북도지체장애인협회가, 화합상은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가 수상했다.



## 발행인 칼럼



## “전국의 중증장애인부부 여러분들에게”

일귀내신 ‘장한 배우자상’의 신명자 씨.

1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내를 지극한 정성으로 간병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아름다운 배우자상’의 김기택 씨.

위의 두 분을 포함해 대회에 참가하신 47쌍의 중증장애인부부들은 신체적 장애와 차별, 경제적 어려움, 사회의 무관심 등을 비롯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부의 연을 맺어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수기에는 보통 사람(부부) 같으면 결코 이겨낼 수 없을 거라 여길 수 밖에 없는 역경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증장애인 남편 혹은 아내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밝고 깨끗한 모습으로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내셨습니

다.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고통을 감내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눈물을 감추며 인고의 세월을 보내며 살아 오셨습니다.

모쪼록 지난 「2011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가 중증장애인부부 여러분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주위 동료들과 함께 격려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사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아름다운 사랑을 잘 지켜온 만큼 더욱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지금의 행복한 가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최대 장애인당사자단체의 수장으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

겠습니다. 내년 대회에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 큰 규모와 알찬 프로그램이 가득한 대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중증장애인부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더욱 노력합시다. 장애인이라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회와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맞서 나아갑시다. 냉혹한 현실과 삶의 고통도 부부간의 따뜻한 사랑으로 견디고 극복해 나아갑시다.

전국의 중증장애인 및 배우자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중앙회장 **김정록**

## ◆ 김정록 중앙회장 동정(9월 26일 ~ 10월 25일) ◆

월/일	내 용	일시	내 용
9/26	2011 서울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10/12	장애인게이트볼대회 최강전
9/28	2011 전국장애인자립작업장 경영자연수	10/13	KT 이석채 회장 면담
9/29	세계장애인문화예술축제대회	10/17	제3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진주)
9/30	척수장애인의 날 기념대회	10/18	- 강원 한마음 전진대회 - 한국장애인재단 이사회
10/4	시·도협회장 회의(화상회의)	10/19	2011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올림픽파크텔)
10/6	대전 장애인합동결혼식	10/20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포럼 참석
10/7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10/24	보건복지부장관 오찬 간담회
10/10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출판기념회	10/25	경기안산지회 합동결혼식



김정록 중앙회장이 10월 7일 목동주경기장에서 열린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를 방문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김정록 중앙회장이 10월 19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11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의 참가한 중증장애인부부를 격려하고 있다.

# ‘2011 전국장애인자립작업장 경영자연수’ 실시

## 전문성 강화...김정록 회장 “CEO 마인드로 무장해야”



‘2011 전국장애인자립작업장 경영자연수’의 폐회식이 끝난 후 실시된 기념촬영.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지난 9월 28일(수)부터 30일(금)까지 2박 3일간 제주대명리조트(제주시 조천읍)에서 『2011 전국장애인자립작업장 경영자연수』를 개최했다.

전국의 지장협 산하 60여명의 장애인자립작업장 경영자들이 참가한 이번 연수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장애인자립작업장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교류를 통해 시설별 운영발

전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함은 물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급변하는 환경 및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의 첫 번째 날에는 중앙회 김태호 사무총장의 ‘직무능력강화를 위한 업무 전반’ 주제의 강의, 국민노무법인 진재영 노무사의 ‘알기 쉬운 사회복지시설 인사노무관리, 채용부터 퇴사까지’의 강의 등이 진행됐다.

이어 연수의 두 번째 날에는

지난 1989년 제주도 최초의 장애인근로작업장으로 개설된 ‘춘강장애인근로센터’ 견학과 문화체험, 장애인자립작업장 발전을 위한 토론 등이 실시됐고, 마지막 날에는 김정록 중앙회장의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경영마인드’를 주제로 하는 특강과 연수 수료증 수여식 등이 마련됐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특강에서 “급변하는 정책, 사회의 전문화, 복잡한 경쟁, 시장의 확대 등으로 인해 장애인자립작업장에도 전문·창조성 등을 겸비한 CEO가 요구되고 있다”며 “CEO의 경영마인드로 장애인고용 확대 및 작업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연수에 참가한 지장협 산하 장애인자립작업장 경영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새로운 아이템 및 판로 개척과 세심한 법적 검토를 통해 작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투명한 회계처리 등을 비롯한 행정력 제고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이 고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제8기 전국 시·도협회장’ 모집

### 협회 홈페이지 방문, 11월 9일까지 접수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장애인지도자 등 응의 문호를 대폭 개방하여 지역장애인의 복지 및 권익 신장에 앞장서서 이끌어갈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제8기 전국 시·도협회장’을 모집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장애인복지를 위한 신념과 희생의 의지를 가진 자로, 지체장애인으로서 지장협 정회원이며 기타 협회 정관 및 제규정에 부합되는 자이다.

하지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록장애인이 아닌 자, ▲협회의 제명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회무에 지장이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전형방법은 협회 홈페이지(www.kappd.or.kr)를 방문, ‘1차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오는 11월 9일(수)까지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우체국 소인분 유효)으로 접수시켜야 한다.

2차 접수서류는 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이후 11월 중 협회장 선임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협회장 임기는 2011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회 조직지원팀(02-2289-4370~1)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전문가와 함께 솔로탈출하세요”

장애인 맞선, ‘솔로탈출119’ 참가자 모집



‘솔로탈출 119’ 행사 모습.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오는 11월 26(토)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성인 장애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미팅프로그램인 ‘제4회 장애인맞선이벤트-솔로탈출 119’를 개최한다.

지장협은 결혼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음에도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부족으로 인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성인 남녀 장애인을 대상으로 배우자 선택의 기회와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미팅프로그램인

‘솔로탈출119’를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해왔다.

특히 이날 행사는 전문적인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협조로 유쾌한 남·여 장애인의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20세 이상 45세 미만의 남녀 장애인 은 지 장 협 홈페이지(www.kappd.or.kr)를 방문,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접수기한인 11월 21일(월)까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02-2289-4321~2)로 문의하면 된다.

## 11월 11일, ‘전국지체장애인대회’ 예정

### aT센터...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 시상



「제11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가 오는 11월 11일 aT센터에서 개최된다.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제11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가 오는 11월 11일(금) 오전 11시 서울 양재동에 소재한 aT센터에서 열린다.

국내최대의 장애인당사자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에서는 전국의 지체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일어서고, 단합된 모습으로 진정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01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발기인 총회’가 열린 11월 11일을 ‘지체장애인의 날’로 선포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전국

지체장애인대회’를 매년 개최해왔고, 올해로 11회째를 맞는다.

이날 대회에서는 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시상,최우수협회, 최우수지회(우수지회)등의 각종 시상식과 ‘지체장애인의 날 제정취지문 및 결의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 김창환 회장 ‘대한민국 특수체육상’ 수상 상금 500만원, 대구장애인체육회에 기부

###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김창환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이 지난 10월 14일(금)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9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 및 2011 체육발전 유공자 포상 전수식」에서 ‘대한민국 체육상 특수체육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대한장애인게이트볼연맹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창환 협회장은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김창환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이 ‘대한민국 체육상 특수체육상’을 수상하고 있는 모습.

상금 500만원을 대구장애인체육회에 기부한 김 회장은 “대한장애인게이트볼연맹의 활발

한 활동은 물론, 대한민국 장애인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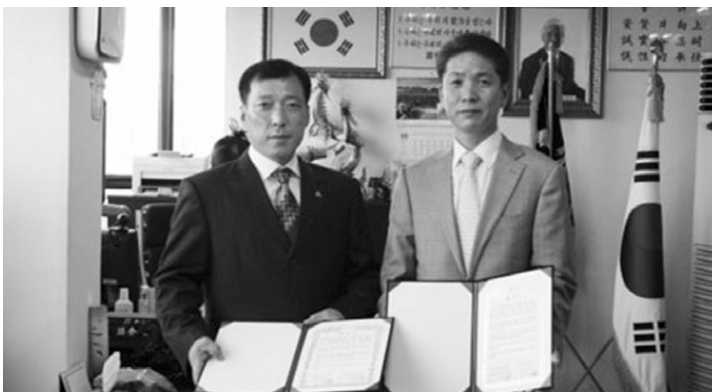
## 프라임C&D와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 체결

###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광표, 이하 협회)와 프라임C&D(주)(대표 박종학)은 지난 10월 17일(월) 오후 3시 협회 회장실에서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협력 체계를 구성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고용증진에 앞장 설 예정이다.

김광표 회장은 “협회는 협약을 통해 전문 기술을 가진 장애인



김광표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과 프라임C&D(주) 박종학 대표가 17일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들의 인력을 제공하고, 기업체에서는 협약을 통해 인력을 제

공받게 되는 등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찾아가는 민원상담사업’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부형중)는 지난 10월 10일(월) 추자도를 그리고 12일(수) 우도를 방문, ‘2011 도서지역 찾아가는 이동 민원상담사업’을 실시했다.

제주협회가 실시한 ‘찾아가는 민원상담사업’은 접근성이 제한된 도서지역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시책을 안내하고 무료·이미용 서비스를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1 도서지역 찾아가는 이동 민원상담사업’에서 무료 이·미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 (주)선양과 ‘복지증진 MOU’ 체결

「(사)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주)선 양」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협약식



‘상호업무협약을 위한 협약식(MOU)’ 체결 모습. 사진 중앙 왼쪽부터 이견희 협회장, 박근태 사장

###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대전. 충남지역 소주업체인 (주)선양(사장 박근태)과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이견희)는 지난 21일(금) 오후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상호업무협약을 위한 협약식(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해 서로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또 이 회사는 문화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해 문화공연과 ‘계족산 맨발 황톳길’ 초청 행사 등을 진행해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활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근태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 번 살피는 한편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랑엔 장애도 국경도 없다!”

경북장애인합동결혼식...오춘오 씨, 필리핀 여성과 결혼



지난 10월 11일 열린 ‘제16회 경북장애인합동결혼식’ 행사 모습.

### 경북협회 김천시지회

지난 10월 11일(화) 안동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6회 경북장애인합동결혼식’을 통해 10쌍의 장애인 부부가 친지, 하객, 내빈 등 500여명 앞에서 백년 해로를 약속하며 화족을 밝혔다.

특히,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지회장 박선하) 소속 오춘오 씨와 비장애 여성인 필리핀 국적의 핑티넴 씨가 4년간의 힘겨운·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돼 눈길을 끌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장애인 합동결혼식은 경상북도가 지난

1996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매년 10쌍씩 총 150쌍을 부부의 연으로 맺어 주었으며, 결혼식을 올린 이들 부부들에게 결혼비용을 비롯해 3박4일 제주도 신혼여행, 웨딩촬영, 웨딩카 서비스, 이불·주방용품·세제 등 혼수를 후원하고 있다.

김천시지회 박선하 지회장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 백년가약을 맺게 된 오춘오 씨를 비롯한 부부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서로 아끼고 사랑으로 합심해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길 바란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29호 2011년 10월 25일

회 장 · 발행인 / 김정록 편집장 / 이현일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hambaknun30@nate.com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성명서

## “장애인고용공단 국고출원금 늘려야 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은 기업체로부터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아 의무고용을 미달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받아 장애인고용촉진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장애인 추가 고용 사업체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 취업훈련을 하거나, 장애인고용사업장에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고용관련 연구사업도 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2800억 원 중 운영비와 인건비가 600억원 정도 사용되는데, 이 비용 역시 기업체에서 거두어들이는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정부의 일반회계인 국고에서 200억원을 출원받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운영비와 사업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업체에서

부담한 비용을 오로지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되어 기업체나 장애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경직성 경비로 공단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되는 것은 공단의 존립을 위해 기업이 자금을 대는 것이 된다.

장애인고용이 아닌 비장애인 고용정책에서 노동부는 취업상담요원을 공무원화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변경하고, 장애인의 문제는 외부 자금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공단의 운영비나 인건비 중 상당 부분은 기업체로부터 기금을 징수하는 업무까지 있어 돈을 걷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꼴이다.

최소한 공단의 운영비와 인건비는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단시일에 수용이 불가능하다면 점차적으로라도 국고 출원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정부나 준정부 기관은 2%에서 3%로 인상되었고, 민간 기업은 2%에서 2.7%로 인상되어 기업의 부담금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고, 장애인고용도 더 많이 해야만 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정부의 부담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고, 정부의 의무고용 미이행에 대하여 민간기업처럼 분담금을 내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부담도 당연히 늘어나야 하며, 원래 정부의 책임이었던 것이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로 예산을 늘리기보다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어

자립하고 사회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누누이 발표하였으나, 실제로 장애인고용에 획기적인 사업 하나 기획하지 않았고,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데에도 너무나 소홀하였다.

노동부에서 청년실업이나 노인 일자리를 몇 만 개를 만들었다거나, 고용을 위해 사회적 기업이다, 신규 일자리 창출이다 하였지만, 장애인을 그러한 사업에 전혀 포함하여 기획하지도 않았다. 장애인의 고용을 늘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긍심을 가진 국민으로 세금으로 사는 장애인인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

민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먼저 공단의 국고 비용부터 늘려야 한다.

기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고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환경 속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통하여 경제력을 살아가도록 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자립이 가장 효과적 대책이라 믿는다면 그러한 사업을 민간 기업에 손별리기보다 국가가 먼저 나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김정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DPI,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제5회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 성황리 개최

## 장애·비장애인들의 축제...이윤호 레이싱부 우승



‘제5회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 모습.

##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마라톤을 통해 하나로 어울리는 대화합의 한마당, ‘제5회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이하 대회)’가 지난 10월 8일(토) 오전 10시,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인숙) 주변도로에서 펼쳐졌다.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과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의정부시,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의정부지점, 농협중앙회동의정부지점의 후원하는 본 대회의 개최식에서는 출전 선수, 복지관 이용자, 지역 시민들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문희상 국회의원, 강성종 국회의원, 홍희덕 국회의원, 노영일 의정시 의회의장 등의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대회는 모두 레이싱부 5km, 시각장애인부 10km, 비장애인부 10km, 생활옹호체어부 5km, 장애인통합부 5km(장애유형구분없음), 어울림부 5km(장애인과 비장애인 2인1조 구성) 총 6개 부분의 경기가 펼쳐졌다.

경기 결과 ‘레이싱부 T53~54’에서는 이윤호 선수가 남자 1위, 김수민 선수가 여자1위의 영예를 안았고, ‘레이싱부 T52’에서는 이봉준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시각장애인부’는 이철승, 장유경 선수가 남·여 1위를 각각 차지했고, ‘비장애인부’는 유진홍 선수가 남자 1위, 여자1위는 김경숙 선수에게 돌아갔다.

이밖에 ‘생활옹호체어부’ 남자 1위 이강원, 여자1위에는 장정옥 선수가, ‘장애인통합부’ 남자1위 김항태, 여자1위 최송이, ‘어울림부’ 장홍준·오기주 커플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제6회 세바퀴사랑나눔” 개최



‘제6회 세바퀴사랑나눔’에서 열린 ‘장(長)애(愛)마라톤대회’ 모습.

##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 주최하고 삼성카드(주)(대표이사 최치훈)가 후원하는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제6회 세바퀴사랑나눔’ 행사가 지난 10월 22일(토) 오전 10시부터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개최됐다.

지난 2005년 시작되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다양한 종목의 체육대회와 축하 공연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장애 O,X 퀴즈, 시

각장애안내견체험, 휠체어주행연수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장애체험 코너와 장애인들이 직접 만드는 제과와 커피 등의 프로그램들이 실시됐다.

특히 오는 2012년 런던올림픽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진행된 ‘장(長)애(愛)마라톤대회’에서는 2km, 5km 부문 장애인, 비장애인 참가자들이 전원 완주를 하며, 후원처로부터 휠체어마라톤 국가대표 선수들의 장비 교체비 이백만원을 지원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 “한국장애인복지를 이끌어갈 역량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전국 480만 장애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장애인지도자 등용의 문호를 대폭 개방하고 지역장애인의 복지 및 권익신장에 앞장서서 이끌어갈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제8기 전국 시·도협회장을 모십니다.

## ■ 모집대상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8기 전국 시·도협회장

## ■ 자격요건

- 장애인복지를 위한 신념과 희생의 의지를 가진 자
- 지체장애인으로서 협회 정회원인 자
- 기타 협회 정관 및 제규정에 부합되는 자
- ※ 응시자격 결격사유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관 제12조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아닌 자
  - 4) 협회의 제명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금고이상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7)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회무에 지장이 있는 자

## ■ 전형방법

○ 서류심사(면접시 개별 통보)

## ■ 제출서류

- 1차 서류
  - 1) 선임신청서 1부(협회 소정양식)
  - 2) 정회원 추천서(정회원 50명 이상 추천, 협회 소정양식)
  - 3) 이력서 1부(학력 및 경력증명 증빙서류 일체)
  - 4)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1~2매 분량, 장애발생년도 및 장애원인, 활동경력 명기)
  - 5) 협회운영계획서 1부(구체적으로 기술)
  - 6)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수첩) 사본 1부
  - 7) 정회원증(앞, 뒷면) 사본 1부
  - 8) 주민등록등본 1부
  - 9) 반명함판(3cm×4cm) 사진 4매
- 2차 서류
  - 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 협회장 선임 공고 및 서류 접수기간

- 선임공고기간 : 2011년 10월 17일(월) ~ 2011년 11월 9일(수)
- 1차 서류접수 : 2011년 11월 3일(목) ~ 2011년 11월 9일(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 유효]
- 2차 서류접수 : 추후 통보

## ■ 협회장 선임자 발표

2011년 11월 중(예정)

## ■ 협회장 임기

2011년 12월 1일 ~ 2014년 11월 30일(3년)

## ■ 서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 교부 : 협회 홈페이지(www.kappd.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접수처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1호(☎02-2289-4370~1)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조직지원팀 앞

## ■ 기타 유의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응모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미제출시 임명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분야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조직지원팀 임순봉 부장
- ☎ 02-796-4280 (직통) 02-2289-4370~1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 복지부 내년 ‘장애인 예산안’ 살펴보기

## 12개 사업 증액, 6개 사업 동결, 5개 사업 삭감

정부가 ‘201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올라가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앞두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부터 올해보다 6.4% 확대, 92조원으로 편성된 '보건복지부 2012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예산안에 포함된 장애인정책국 소관 장애인사업 예산은 총 23개다. 이중 장애인활동지원 등 12개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증액 책정됐으며,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등 6개 사업 예산은 올해와 같다. 장애인보조기구지원 등 5개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삭감, 편성됐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천 원만 인상, 부가급여 동결**  
먼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은 올해(10월 5일 시행) 776억5,800만원에서 2,322억2,000만원 증액된 3,098억7,8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등은 올해(활동보조서비스 포함 5만명)보다 5,000명 늘어난 5만5,000명에게 지원된다.

장애인연금 예산은 올해 2,887억2,400만원에서 58억6,000만원 증액된 2,945억8,5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기초급여는 올해 9만1,000원보다 3천원 오른 9만4,000원(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이다.

부가급여는 올해와 변동없이 18~64세의 경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6만원, 5만원이며, 65세 이상은 기초수급자, 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계층이 15만원, 7만원, 12만원, 2만원이다.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전환됨에 따라 기초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복지부 예산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9만1,000원에서 15만1,000원 수준인 장애인연금은 내년 9만4,000원에서 15만4,000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장애수당 예산은 올해 1,015억1,100만원에서 59억8,700만원 증액된 1,074억9,800만원으로 구성됐다.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 예산은 올해(153억원)보다 3억6,200만원 오른 156억6,200만원이며, 장애아동가족지원 예산은 545억6,100만원에서 18억2,000만원이 올라 563억8,100만원으로 편성됐다.

장애인의료비지원 예산은 올해(257억6,600만원)보다 10억2,600만원 증액돼 267억9,2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은 올해(272억9,300만원)보다 27억3,800만원 오른 300억3,100만원으로 편성됐다.

장애인단체지원 예산은 올해(80억1,700만원)보다 12억300만원 오른 92억2,000만원으로 올랐으며, 중증장애인자

립생활지원 예산은 올해(22억)보다 2억원 올라 24억원에 구성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예산은 올해(41억200만원)보다 2억4,000만원 오른 43억4,200만원에 그쳤다.

이밖에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은 올해(22억)보다 2억원 오른 24억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 예산은 1억7천만원 오른 6억7,000만원, 장애인지원관리 예산은 3억원 오른 7억800만원으로 책정됐다.

###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130억원 삭감

반면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예산은 9억1,900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 예산안은 3억4,300만원, 여성장애인지원사업은 6억4,000만원으로 동결됐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과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예산도 각각 166억6,400만원과 19억

원, 4억5,000만원으로 올해와 같다.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예산은 올해 577억3,500만원에서 136억3,800만원이 삭감된 440억9,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장애인보조기구지원과 재활병원건립 예산은 올해 각각 36억6,000만원, 52억원에서 2억2,600만원, 2억원 삭감돼 34억3,400만원과 50억원으로 편성됐다.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예산과 장애인자립자금이자 및 손실보전금 예산도 올해(9억2,800만원/34억4,100만원)보다 각각 2억8,500만원, 14억4,100만원 줄어든 6억4,300만원과 20억원으로 구성됐다.

복지부의 내년 전체예산안은 올해보다 6.4% 확대된 92조원이다. 예산안은 앞으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올라가 최종 확정된다.



영화 '도가니'의 여파가 국회로까지 미치고 있다.

국회가 10월 24일(월)부터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도가니 관련법'을 본격 심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위원장 민주당 우윤근 의원)는 19일(수) 오전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도가니' 관련 법안을 오는 24일 산하 법안심사

소위에서 첫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에는 현재 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여건 계류돼 있다.

여야는 이중 영화 '도가니'의 상영으로 쟁점화 되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작량감경(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때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행위) 배제를 담은 법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해서도 형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을 일 반 성폭력과 동일하게 처벌하지

않고 범죄 유형별로 세분화한 뒤 각각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 등이다.

또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일 경우에만 성폭력을 인정,

장애인 대상 사건이 법망을 피해간다는 지적에 따라 '항거불능'의 표현을 삭제하거나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등으로 고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

인다.

첫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 법사위, 도가니 관련법 본격 심의

### 아동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장애인 성폭력 처벌강화 등

## 가짜 장애 진단 5명 영장

### 허위진단서로 병역 면제 받아

광주지방경찰청은 가짜 장애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제 받은 23살 A씨 등 5명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사이 서울 모 신경과

의사 50살 정 모씨로부터 '어깨 탈구와 강직' 등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병역을 면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브로커를 통해 1인당 2백만원에서 2

천만원을 병원에 주고 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하지만 광주 한 대학병원에서 진단 결과 A씨 등의 신체 상태는 정상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의사 정씨에 대해 장애 진단서를 부정 발급해 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 활동지원 신청 저조, 예산 불용 우려

## 2달 간 신청자 6300명...예산인원의 46% 수준

10월 초부터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가 '활동지원제도'로 제도화돼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제도를 신청하지 않고 있어 예산 불용이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5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수급자(8월 기준 3만 6,326명)를 제외하고, 10월부터 제도 시행을 위해 편성된 올해 예산은 777억원으로 잡혀 있다. 복지부는 신규 신청에 대한 홍보를 펼쳐왔고, 현재에도 각 시·군·구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한 장애인은 1급장애인(21만4천명) 중 총 9만5천명. 복지부는 올해 전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추계액을 10월 4만6천명, 11월 5만명, 12월 5만2천명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신규신청은 저조한 상황이다. 박은수(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대비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10월 1일 기준 누적 신

규신청자는 6,303명으로 예상 신규신청자 13,674명의 46% 수준이다. 이는 8월 8일부터 접수 받은 것으로, 신청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장애수당을 위해 실시한 약 10만건의 장애등급심사 결과를 보면, 장애등급이 하향조정된 비율이 36.7%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공정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선 장애등급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활동지원 신청이 늘지 않으면 예산이 불용되는 상황도 간과할 수 없다.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는 "신청률이 저조하면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상이 확대되면 기준 관련해서도 더 들어올 수 있게끔 맞춰야 하는데 조정하지도 않고 기존대로 하고 있으니 문제다. 이대로 똑같이 적용한다면 (예산 불용이)일어날 수 밖에 없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법 관련해 수급자를 탈락시키는 등을 통해 남은

예산이 많았었다. 복지예산을 늘렸다고 하면서 (이런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건 추후)복지예산을 줄이려는 또다른 방법이지 않나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선 원칙적으로는 등급제가 폐지돼야 한다. 활동지원 관련해서 일본도 인정조사만 하고 등급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그런식으로 가야 한다"며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아, 현 상태로 한다면 서비스량을 늘리는 등의 방법밖엔 없다"고 주장했다.

수급대상을 1급으로 제한하는 한 신청률 저조는 계속될 거란 주장도 제기됐다.

한 장애인계 관계자는 "1급 대상자 중 활동지원을 받을 사람은 거의 다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1급 중에서도 돌봐주는 가족들이 있는 등의 이유로 활동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활동지원 신청 기회가 있어도 신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결국 2급이나 3급으로 늘리지 않는 한 활동지원을 신청할 대상자는 더이상 늘지 않는다.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우려들에 대해 복지부 활동지원TF팀 관계자는 "9월말보다 지금 2주정도 지난 상황에서 신청률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며 "11월부터 급여제도를 위해 노력할 단계고, 활동지원의 장점을 설명하며 홍보하는 게 우선이다. 댁에 찾아가는 직접 방문안내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장애등급심사 지적에 대해선 "장애등급심사로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때문에 신청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과거에는 의사들이 심사해, 등급이 완화돼 나갔기 때문에 현재 등급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맞춘거지, 그 과정을 엄격하다고 하는건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대상자 확대와 관련해선 "지금 당장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9만5천명(1급) 대상 중 5만명이 지원되는 건데, 4만5천명도 언제든 지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는 지켜보는 게 옳다"고 말했다.

〈출처-에이블뉴스〉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홍보 포스터.

## 인권위, 시설장애인 인권보장 주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 등을 포함한 인권위 추진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전원위원회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해 나갈 핵심 과제를 정리한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2006년부터 3년 단위로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을 마련, 전략적 중기업무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권위는 계획의 기본 방향을 △인권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노력 △인권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역량 강화로 잡고 있다.

5대 전략 목표는 △기본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조사·구제의 실효

성 제고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차별시정 강화 등으로 정했다.

인권위는 전략 목표에 따라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모색과 철거민, 1인취약가구 등 빈곤계층인권을 위한 주거권, 건강권 보장에 주력한다.

특히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복지시설의 인권친화적 운영가이드라인 마련은 물론,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방안 강구, 유형별 미인가 시설에 대한 인권보장 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인권문제에 대한 선단발성, 행사성의 방문조사가 아닌 단계적이며 종합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출처-에이블뉴스〉

##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폐막

### 한국, 금23·은22·동15 종합1위...2위는 대만

‘2011 서울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가 6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9월 30일(금) 오후 3시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우리는 챔피언’이라는 주제로 열린 폐회식에는 40개 직종의 160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종합 1위는 금메달 23, 은메달 22, 동메달 15개로 우리나라가 차지했다. 2위는 금메달 6개로 대만이 차지했다.

폐회식 후 진행된 환송연에서는 ‘하나된 세계, 하나된 우리’ 주제로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환송연에는 사물놀이 공연, 레이저쇼, 아이돌 그룹 엠블랙의 축하공연과 DJ파티가 이어졌다.

‘세계를 향한 끝없는 도전’이



2011 제 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폐회식에서 기계제도 CAD종목의 수상자들이 메달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치열한 경합 속에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총 40개 종목, 57개국 1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기량을 마음껏 선보였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장애인들의 도전과 열정, 감동과 희열을 경험했다”며 “오늘 이 자리가 모든 참가자 분들의 기회와 희망의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 2년 새 장애인고용 선호 기업체 증가

## '08년 조사보다 17.3% ↑ …채용계획도 1.7% ↑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려는 기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체 2,067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2010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실천을 선호하는 기업체의 비율은 65.1%로 2008년 47.8%보다 17.3%p 상승했다.

장애인 고용이 기업경영에 기여하는 바도 2008년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고용이 기업체의 재무적 성과에 도움을 주는 정도는 3.02점에서

3.21점, 사회적 책임 이행이 도움이 된 정도는 3.47점에서 3.62점, 기업 이미지 개선은 3.14점에서 3.32점,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은 3.62점에서 3.71점으로 증가했다.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기업체 가운데 장애인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체도 2008년 47.1%와 비교해 2010년 48.8%

로 1.7%p 상승했다.

반면 장애인을 채용할 때 장애인의 직업능력보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먼저 고려하는 기업체의 비율은 2008년 62.3%에서 2010년 63.6%로 여전했다.

한편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는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및 고용요인을 파악해 장애인고용증진을 위한 정책수

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장애인(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된다.

2000년과 2005년에 실시된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가 2008년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로 변경되고 주기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 실시되고 있다.

〈출처-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 차관에 내정된 손건익 실장. ©보건복지부

## 이 대통령, 복지부 차관 내정 前 보건의료정책실장 손건익 씨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손건익 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내정했다.

손 내정자는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영국 런던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생

활보호과정, 복지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청와대는 인사배경에 대해 "건강정책국장, 노인정책관 등을 지내면서 검증된 탁월한 업무능력과 풍부한 보건복지 행정경험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 '팻물'·'마늘밭' 장애인문학상 대상 영예 개발원, 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 입상자 발표



장애인문학상 산문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은 윤남석씨 모습. ©한국장애인개발원

과 암시를 훌륭하게 활용했다는 평가를 들었다.

또한 장애인문학상 최우수상은 이진영(지체1급)씨의 동화 '목마와 민들레의 꿈'과 심철수(신장2급)씨의 시 '자비송'에 각각 돌아갔다.

이외에도 장애인미술대전 1부(한국화, 서양화, 공예·조각) 대상에는 김병수(청각2급)씨의 서양화 '옛님을 만나다'가 선정됐다. 장애인미술대전 2부(서예, 문인화, 전각, 서각) 대상은 남진환(지체3급)씨의 서예 '안중근의 사시'가 차지했다.

'옛님을 만나다'는 화면의 처리와 색감, 기법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안중근의사시'는 전반적인 구성의 묘와 튀지 않는 절박함, 원만한 먹의 처리가 좋은 평을 얻었다.

특히 추천작가 작품 중 뛰어난 2점의 작품에 대해 시상하는 특별상은 조신제씨의 문인화 '맑은 기운'과 박정씨의 서양화 '시선'에 돌아갔다.

한편 '제21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 시상식'은 10월 25일(월) 오후 2시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제1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장애인문학상과 미술대전 수상작은 각각 모음집과 화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윤남석(지체6급)씨의 단편소설인 '팻물'과 하재범(지체3급)씨의 동시인 '마늘밭'이 장애인문학상 산문부문과 운문부문에서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은 21일 '제21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입상자 20명과 미술대전 입상자 118명을 발표했다.

산문부문 대상의 '팻물'은 상징성 높은 은유 장치 활용으로 내용을 밀도 있게 풀어 나가 개성 있는 작품성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문부문 대상의 '마늘밭'은 마늘종 뽑는 소리를 어머니와 자식의 이별하는 슬픈 소리로 빗대어 표현해 함축

## “제31회 전국장애인체전 성황리 폐막”

### 경기도 6연패… 비공인 세계신기록 3개 수립

경기도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6연패를 달성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10월 21일(금) 경남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제3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폐회식을 갖고 5일 동안의 대회일정을 마감했다.

대회결과 경기도는 금 130, 은 103, 동 124개로 22만6,718점을 획득해 종합수승을 차지했다. 서울이 15만7,089점으로 2위를 경남이 15만581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기자단이 뽑은 최우수선수상(MVP)은 참가이벤트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 대회 5관왕에 오른 지적장애부문 수영의 조원상(경기) 선수에게 돌아갔다. 조 선수는 올해 19세로 지난 대회에서도 5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국제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에서 신기록행렬이 이어졌다. 사격 남



제3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우승 경기도. ©대한장애인체육회

자 공기소총입사단체전(R1 SH1)에서 충북이 비공인세계신기록인 1766점으로 종전의 세계기록(중국 1754점)보다 12점 앞섰다.

여자 공기권총 단체전(P2 SH1)에서도 경남이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양궁에서도 고희숙(서울) 선수가 여자 리커브30M 개인(ARW2) 부문에서 344점을 기록하며 세계기록을 갱신했다.

한편 신인선수상은 수영의 김민동(인천) 선수에게 돌아갔다. 김 선수는 금 2개 은 1개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둬 장애인 수영의 유망주로 급부상했다.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좋은 성적을 냈다. 런던장애인올림픽 장애인 조정 출전권을 획득한 박준하(부산) 선수는 개인전AS와 개인전TA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 사태 ‘일파만파’

## 후원물품 횡령, 직원채용, 직원폭행 등...현재 문광부 감사 중



최근 각종 의혹에 휩싸인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

이 사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7일(금)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후원물품 횡령이라는 ‘메가톤급’ 의혹을 제기, 접화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공식후원사인 장수돌침대는 지난해 시가 7억원 상당의 옥매트 900장을 후원했다. 하지만 장애인체육회에서 제출한 장수돌침대 후원현황에는 100장만 후원받은 것으로 표기돼 있다.

장 의원은 “윤 회장이 지난해 11월경 옥매트 500장을 이사장으로 있는 성내복지관 이름으로 후원받아 지역구 사람들에게 뿌리고, 지난해 12월 동료의원 5명에게 총 250장을 후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750장에 대해 후원자가 장애인체육회 또는 성내복지관의 영수증을 원했지만, 장애인체육회 직원을 통해 수원소재 나눔복지회 영수증으로 세탁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장수돌침대의 후원목적과는 다르게 후원물품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체육회의 공채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윤석용 회장이 취임한 2009년 11월 이후 4차례에 걸쳐 채용된 일반직 직원 15명 중 절반에 달하는 7명이 강동구 거주자로 이들 다수가 장애인체육과는 무관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노조 “횡령 및 직원 폭행” VS 윤회장 “징계 직원의 불만 때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 윤석용 회장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후원 물품 횡령, 선거법 위반, 직원 폭행 및 사직 강요 등 잇따라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 비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가하면,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가 하면, 윤 회장은 해명 자료를 내고, ‘사실무근’임을 옹호하며 주장하고 있다. 한발 나아가 민주당에게는 ‘정치 놀음에 장애인을 이용하지 말라’, 장애인체육회 노조에게는 ‘거짓선동의 절정’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윤 회장 사태에 대한 ‘진실 찾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또, 추가 의혹이 제기될 지의 여부에도 장애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편집자주>

폭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옥매트 횡령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직원을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 노동조합은 10월 10일(월)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5월 체육회 이모씨가 간부급 회의가 끝난 후 ‘밥을 먹지 않고 나간다’는 이유로 윤회장이 제시한 견적서에 찍힌 돌침대로부터 지팡이로 옆구리를, 열굴을 주먹으로 가격당했다”라고 폭로하며, 윤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해명 자

윤 회장은 “자신의 소개로 장애인단체와 복지관에 전달된 750개는 지난해 8월과 20일 각각 나눔복지장애인중양회와 경기장애인복지협회를 통해 해당 복지관과 단체로 전달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국감에서 장병완 의원이 제시한 견적서에 찍힌 도장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제시한 견적서에 찍힌 돌침대 회사의 도장은 원형이지만 대한사회복지개발원에 제출한 도장은 사각형이라는 것.

특히 윤 의원은 “장병완 의원

당시 주위에 입회자도 있었다”며 “정말 폭행을 했다면 그때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후 이 사태는 체육회와 정치권을 넘어 장애인체육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대한장애인선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2일(수) ‘장애인체육회 분열 획책, 정치 놀음 중단하라!’를 제목으로 하는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2008년 000 前대한장애인체육회장 사퇴 시위 때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려 고질적인 악습을 이어가는 일부 세력에 의해 주도된 반민주적이고 구태의연한 무책임의 전형적인 작태”라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흐트러진 위상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체육위원회는 17일(월) 성명서를 통해 “체육회 사태가 진실공방에 이어서 의혹이 의혹의 꼬리를 물고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장애인 체육인들은 사분오열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냉정하게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자”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체육회 비대위)’는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국민은행 앞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체육회 윤석용 회장 사태와 관련해 집회를 가졌다.

체육회 비대위 김임연 공동대표는 “지난해 체육회에 대한 문광부 감사가 실시되고 이에 따라 장애인직원들의 징계가 있었다”며 “이번사건은 당시 직위해제, 감봉 등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윤 회장에 대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문광부의 감사에서 촉발된 만큼 문광부가 감사결과를 투명성 있게 공개해 이번사건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체육회 비대위는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 공동대표는 “민주당은 자칫 부패세력에 동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장애인을 볼모로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사태는 ‘고소’, ‘고발’을 통한 법적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비리 진상조사위원회(이하 민주당 진상조사위)’가 12일(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고발장 접수는 민주당 차원의 법률 검토를 통해 윤 회장에 신분법상 업무상횡령,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가운데)을 주축으로 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 비리 진상조사위원회’가 12일 윤석용 회장 고발에 앞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료를 내고, ‘사실무근’임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윤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한 이후인 지난 12일(수),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돌침대 전기온열매트(옥매트) 기증현황 일체를 공개했다.

기증현황에 따르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9월 28일 100개, 나눔복지장애인중양회 12월 8일 500개, 경기도장애인복지협회 12월 20일 400개의 옥매트를 후원받았다. 물품 후원협약이 장 의원의 주장대로 12월 14일 이뤄진 만큼 이번 후원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이 횡령의혹의 근거로 돌침대 회사와 협약을 맺은 것이 12월 14일이라고 주장했다.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광저우아시아게임에 참석했다”며 “장 의원의 주장이 날조됐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민주당은 허위조작 폭로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장 의원은 위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이 같은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시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 폭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조가 주장하는 폭행 건은 터무니없는 발언으로



10월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집회 모습.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새보람 요양 병원

SAEBORAM HOSPITAL

또 하나의 가족!

가족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새보람요양병원은 도심속에서도 자연친화적인  
병실환경과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희망을 안겨주는 재활요양치료  
전문병원입니다.

대표전화

02.3492.7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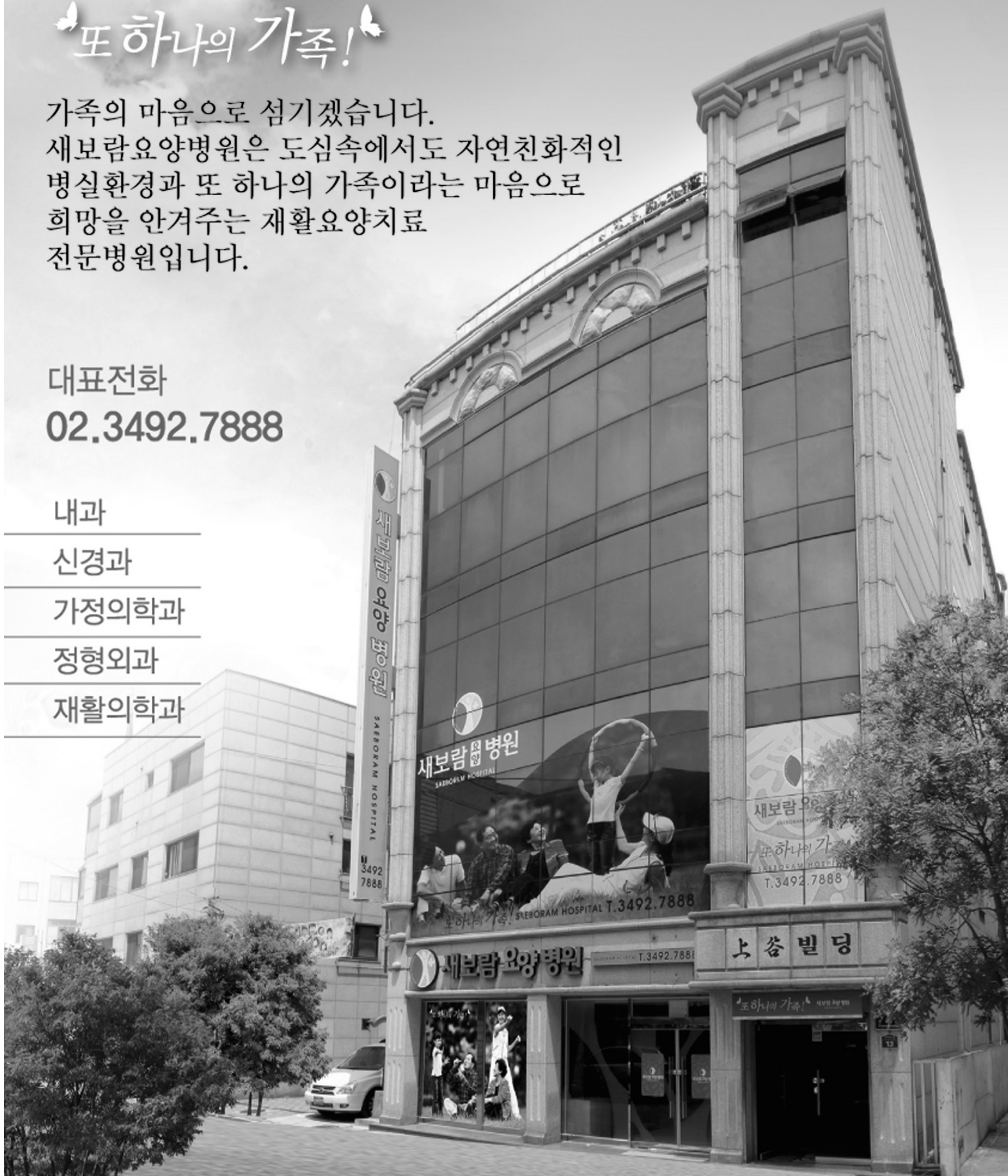
내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 “행복은 내가 다가갈 때 문을 열어주는 것”



신명자씨, 「2011 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장한 배우자상’ 수상  
역경 극복, 행복한 가정 일궈내... “지금의 행복 사회와 나눌 것”



10월 19일(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11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서 김정록 중앙회장이 신명자 씨에게 ‘장한 배우자상’을 전수하고 있다.



김정록 중앙회장과 ‘지립상’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관휘 수석부회장(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장)이 ‘가화상’ 수상자들에게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전수하며 격려하고 있다.

“사고로 하반신마비가 되며 삶의 의욕을 잃었던 남편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얼마 못 산 다던 아들도 기적적으로 병이 완치되어 그 어렵다던 취업에 성공해 가족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어찌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행복은 끊임없이 다가가는 제게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행복 이젠 사회와 나누고 싶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가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홀에서 개최한 「2011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차분한 어조로 수기를 읽어 내려갔고, 사람들의 역경을 이겨내고 행복한 가정을 일궈낸 그녀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수기의 주인공은 이날 대회에서 ‘장한 배우자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신명자(여, 46세) 씨. 신 씨의 남편은 결혼 후 어느 날 건축 일을 하다가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 ‘하반신마비’가 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신 씨의 나이는 27세.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남편의 병간호와 육아, 생계를 동시에 책임지기도 벅찼던 신 씨에게 아들이 ‘악성 림프종양’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점점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남편, 기약 없는 치료를 시작한 아들, 경제적 어려움 등은 그녀를 짓

눌렀지만 신 씨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신 씨는 “행복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을 향해 나아갈 때 행복은 비로소 나를 향해 문을 열어 준다”는 신념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했고, 어느날 ‘기적’은 시작됐다.

담당의사도 포기하랴던 아들(태주)의 병이 ‘기적’적으로 완치된 것이다. 비록 5년 동안의 항암 치료로 뇌세포가 성장을 못해 지적장애인으로 살아야 하지만, 신 씨의 노력으로 인해 고등학교도 졸업, 최근 취업에도 성공해 가족의 기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또한 삶의 의욕을 잃어가던 남편도 신 씨의 격려에 힘입어 재활에 성공, 현재 복지관에서 붓글씨, 수영도 배우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정적인 남편이 되었다.

이에 신 씨는 “이젠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지금 느끼는 이 행복,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실제 신 씨는 요양시설에서 웃음치료 및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KBS가 후원하는 「2011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는 19일과 20일 양일 간 열렸다. 부부 중 한사람이 가족의 도움 없이는 거동조차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의 무관심속에서 생계와 자녀교



10월 19일(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11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모습.





김정록 중앙회장이 대회사를 통해 “더욱 서로를 존중하여 지금의 행복한 가정을 지켜가자”라고 당부하고 있다.



‘장한배우자상’을 수상한 신명자씨가 수기를 발표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덕목’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육까지 홀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장협은 전국의 모범장애인배우자를 초청해 위로하여 그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중증장애인 가정에 대한 정부의 복지시책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본 대회를 지난 1994년부터 개최해왔으며 올해로 9회째이다.

첫날에는 ‘개회식 및 시상식’,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의 ‘명사강연’, ‘만찬 및 축하공연’ 등이 실시됐고, 둘째 날에는 남산공원 관람이 실시됐다.

첫날 시상식에서는 ‘장한 배우자상’을 수상한 신 씨를 비롯해 김기택·엄이득·김영충·황선

자 씨가 ‘아름다운 배우자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김석진·고은진 씨는 ‘가화상(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정희·이정금 씨가 ‘자립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이봉남 씨가 ‘특별상(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상)’을 받았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아름다운 사랑을 잘 지켜온 만큼, 더욱 서로를 존중하여 지금의 행복한 가정을 지켜가자”라고 대회에 참석한 전국의 중증장애인부부에게 당부했다.



김정록 중앙회장이 중증장애인부부를 찾아 격려하고 있다.



명소팀방을 마친 후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김정록 중앙회장과 시상자 등이 케이크커팅을 하고 있다.



한 참가자가 전망대에서 서울전경을 즐거운 모습으로 감상하고 있다.

## 시상자 명단

연번	표창종류	시상자(성별, 나이, 지역)	상 훈
1	장한 배우자상	신명자(女, 46, 경기)	보건복지부장관상
2	아름다운 배우자상	김기택(男, 66, 충남)	보건복지부장관상
		엄이득(女, 58, 경북)	
		김영충(女, 58, 충북)	
		황선자(女, 65, 충남)	
3	자 립 상	이정희(女, 56, 경북)	행정안전부장관상
		이정금(女, 54, 경남)	
4	가 화 상	김석진(男, 47, 서울)	여성가족부장관상
		고은진(女, 42, 대전)	
5	특 별 상	이봉남(女, 60, 경남)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상

## INTERVIEW

### ‘아름다운 배우자상’ 수상자 신명자 씨

Q)먼저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A)물론 기쁩니다. 그동안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Q)참으로 어려운 세월을 이겨냈는데... 부부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서로 아프고 불편한 부분을 이해하고 또 배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언제나 내 편이고 끝까지 함께 할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이 세상 모든 부부에게 필요한 덕목은 ‘이해’와 ‘배려’, 그리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Q)앞으로의 계획이나 소망이 있다면?

A)녹록치 않았던 세월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더 큰걸 바라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내 옆에 함께 있는 이 사람과 건강히 그리고 즐겁게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신명자 씨.



##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결산

# 10월 8일까지 20일간 진행...각종 복지문제 이슈

## 개발원 변화 주문, 영화 '도가니' 통한 장애인 성범죄 관심 촉구

제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8일(토)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국정감사는 무상급식·반값등록금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대한 '복지문제'는 물론, 영화 '도가니'를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장애인 성범죄' 문제와 한국장애인개발원, 활동지원제도 등이 이슈로 부각됐다. 본지는 9월 26일(월)부터 10월 8일(토)까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내용들을 상임위별로 분류,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장애인개발원, 장애인정책 연구 '소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 이하 개발원)이 장애인정책연구 전문기관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정책 연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4일(화) 개발원 국정감사에서 "개발원에서 수행해야 할 장애인 복지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정책개발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이렇게 할 바엔 장애인개발원을 없애는 게 낫다. 250만 장애인에 대한 정책 개발을 맡기면서 총 예산이 55억이고 그 중 연구예산은 10억여원 밖에 안된다. 이걸로 정책을 세우라는 게 말

이 되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2011년도 기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연구관련 예산이 총 예산 55억원의 17.1%인 9억4,000만원이다. 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예산 247억원 중 159억원(64.3%),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예산 175억원 중 84억원(48%)이다.

연구원 수도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9명(전체 90명의 21%)에 불과하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7명(전체 190명의 4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3명(전체 110명의 66%)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개발원이 장애인정책 분야의 싱크탱크(think tank)가 되기 위한 대책으로 △정책연구 관리 규정 신설 △조사·연구분야 ERP 전산화 시스템 구축 △연구수행 인력과 관리인력 별도 편성 △수탁과제 인센티브제 도입 △현장과제의 피드백 등 정책 활용도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변용찬 원장은 "연구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아직 미흡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연구중심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인상 요구

미국 120만원, 우리나라는 10만원에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미래희망연대) 의원은 7일(금) 복지부 종합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과태료를 인상하고, 일반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의식수준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전국의 광역단체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건수는 서울시 1,606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이 1,292건, 경기 649건 순으로 나왔다. 단속 등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이 11건이며, 전남 39건, 강원 5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08~2010년 자치구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평균 단속건수는 강남구가 677.7건으로 가장 높았지만, 성북구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정 의원은 "강남구가 성북구에 비해 불법주차 사례가 678배 많은 게 아니라, 주차단속 의지에 대한 지자체 간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할 경우, 미국은 120만원, 일본은 230만원까지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과태료는 10만원"이라며 "과태료 인

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활동지원제도 시행, 장애인 부담 증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장애인 부담금이 연간 8억원에 달하는 등 장애인가구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부담 폐지 등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광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가구소득이 낮은 장애인가구에게 자부담의 증가는 더 큰 부담이 된다"면서 "급여기준의 재조정과 자부담 정률제의 시정은 물론, 나아가 자부담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에서는 차상위 초과가구의 장애인 자부담을 3~8만원까지 정액으로 차등부과 했지만 활동지원제도에서는 6~15%의 비율로 차등부과하게 된다.

광 의원에 따르면 비율에 따른 차등부과를 현재 서비스 대상자를 기준으로 재구조화하면 월 7천만원, 연간 8억 3천만원 정도를 장애인가구가 더 부담하게 된다.

또한 현행 정액제인 자부담은 기본급여의 상승과 상관없이 상한액에 변동이 없지만, 정률제는 기본급여를 변수로 하고 있어 기본급여가 오르면 자부담 또한 오르게 설계돼 있다.



민주노동당 광정숙 의원.

광 의원은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A값 또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만큼 연동해 오르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광 의원은 활동지원급여의 추가할증 금액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광 의원은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는 급여가 시간기준으로 설정돼 정해진 시간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활동지원제도는 급여기준이 금액으로 책정돼 심야시간이나 휴일의 추가할증 금액에 대해 고스란히 장애인이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 의원은 "복지부는 급여단가도 상향되고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해져 장애인의 선택권이 확장됐다 하지만, 단가가 높은 서비스나 추가할증 금액에 대해선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아 실제 서비스 이용시간은 축소된다"며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제기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예방해야 장애인가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 임 장관, ‘부양의무자 소득’ 개선 긍정적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기존 135%에서 185%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일단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개선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자평했다.

임 장관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춘식 의원(한나라당)이 “모처럼 이명박 정부에서 서민을 위해 획기적인 일했는데, 언론에서 185% 대상으로 되면 28%만 이 혜택을 받는다고 보도했다”며 “(혜택 받지 못하는) 나머지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하는 게 좋겠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 장관은 또한 “185% 확대에 따라 6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표준사업장 심사 ‘부적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선(한나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심사 과정의 부적절함과 함께 부실한 현장 점검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이 의원은 “2010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과 관련 심사과정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문기관에서 17위를 기록했던 한 업체가 본부의 심사위원회에서 12위로 변경돼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심사위원별 개별평가점수 특정심사위원회 점수에서 시설분 투자계획의 적정성 부분에서 평균점수 68점보다 22점 높은 90점을 받았다. 또 장애인고용 계획 타당성 부분에서 평균점수 43점보다 27점 높은 70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심사는 보통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빼고 결정하는게 맞는데 공단의 심사는 그렇지 않았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의 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 최초계획에는 장애인편의시설 비용으로 1억2000만원이 책정됐으나 후에 계획이 변경돼

지원금 3,000만원이 더해져 총 1억5000만원이 최종적으로 지원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이곳 장애인표준사업장은 공단 점검결과에서 최상위 판정을 받았지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점검한 결과 장애

인편의시설 26곳이 부적격한 곳으로 나타나 샤워실, 화장실을 고치는데 9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단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성규 이사장은 “현장점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편의시설 뿐 아니라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데 이어 “장애인표준사업장 심사 규정 역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공단에 자료를 요청 했으나 장애인 취업과 관련해 기본적인 ‘구직등록 방법별 구직등록 현황’, ‘현장 발굴 출장 실적현황’ 등 기본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며 “이 같은 상태에서 장애인 구인이나 취업알선이 가능 하겠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 ■ 여성가족위원회 영화 ‘도가니’와 같은 현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혜성(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지난 9월 27일(목)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성폭력범죄 발생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질의하고 있는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발생한 장애인 관련 성폭력 범죄는 385건으로 작년 8월 187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 사례 4,353건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 3,090건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했다. 이밖에 지체장애인이 474건, 뇌병변장애인이 236건, 정신장애인이 184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체 여성 장애인 105만명 중 성범죄에 취약한 시각·지적·뇌병변·청각·정신·자폐·언어 등의 장애인이 27만3,000여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범죄 취약장애인은 성범죄 피해를 당해도 법적인 대응을 못하는 ‘침묵하는 피해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여성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은 이미 이 문제가 민간과 가정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는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그 데이터를 활용해 장애인 성폭력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와 함께 피해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 정부위원회 장애인전용보험’ 지적

민간의료보험 가입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개발, 도입된 장애인전용보험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부위원회 강성종(민주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민간의료보험 가입 장애인은 33.41%에 불과하다”면서 “1개 이상의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비장애인이 69.15%에 달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장애인 전용보험을 개발했는데, 전국 등록장애인 241만명 가운데 가입 장애인 수는 15만명 정도로 전체 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강 의원은 “장애인 전용보험이 일부 대형 3사에 한정돼 있고, 보장한도가 일반보험 상품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며 “중증장애인들의 가입을 제한하는 까다로운 가입심사기준과 절차로 설계사들도 판매를 꺼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장애인들의 최소 안전망 마련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 행정안전위원회 통신 중계서비스 ‘반쪽 사업’ 지적

‘청각장애인 통신 중계 서비스’의 이용률이 8%에 그쳐 ‘반쪽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안효대(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월 26일(월) 한국정보화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등록된 청각·언어장애인이 27만 8000만명”이라며 “현재 청각 장애인 통신 중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의 비율은 2만여명인데, 이는 8%만 사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또한 “서비스의 주목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소통인데 이용률을 보면 청각장애인도 이용하지 않는 반쪽짜리 사업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안 의원은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홍보하고 있다. 이처럼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비장애인들이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전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며 “서비스 이용률 저조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화진흥원 김성태 원장은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서비스 홍보 부족과 기기나 시스템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청각장애인 통신 중계서비스 홍보 범위를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확대할 것이며,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음에 따라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국립대학병원, 장애인고용 외면 예산낭비

전국 10대 국립대학병원이 장애인고용을 외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의 ‘2010년 장애인고용률’은 평균 1.06%로 납부해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무려 17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병원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0.93%의 장애인고용률을 보인 서울대병원이 약 7억 2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부산대병원도 2억2000만원에 달해 뒤를 이었다.

권 의원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장애인고용률이 늘어난다”면서 “국립대학병원이 하루 빨리 적당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더 많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돼 교육청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립대학병원의 장애인고용률은 올해 2.3%에서 내년 2.5%, 2014년부터는 2.7%로 상향된다.



#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조건’

장애인에게 있어서 체육이란 단순한 신체 활동 또는 건강 증진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통한 재활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립생활과 함께 사회통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실현을 이루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체육활동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다.

장애인 체육활동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재활체육으로써 의료적인 목적으로 병원과 의사들이 중심이 되어 행해지는 체육활동이며, 둘째는 엘리트체육으로 대회참가와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체육활동이고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으로 문화 및 여가 활동을 목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여기서는 생활체육, 그 중에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일명, 동네 체육시설, 근린 생활체육시설 또는 약수터체육시설 등으로 불리는 체육 시설들이 있다. 현대인들은 운동부족 및 체력의 저하 그리고 성인병 증가 등으로 인하여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집단적 또는 개인적으로 하는 체육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장애인 역시 이러한 이유로 전문체육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장애인 체육활동 환경이 비장애인 체육활동 환경보다 열악한 것은 현재까지 틀림없는 사실이다. 현대의 식생활 환경은 좋아졌고 이에 따라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장애인은 운동으로 성인병을 이겨낼 수 있는 체육시설 환경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식생활도 좋아졌지만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환경이 열악하다보니 운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여 비만이 되고 성인병이 심각해지고 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환경조건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운동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에 운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으며 어떤 환경들이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자.



평탄하고 넓은 접근로

첫째, 접근성의 문제이다. 접근성도 장소적 접근성과 이용상의 접근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장소적 접근성이라 함은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에 따른 것으로 시내 근린공원에 설치되는 경우는 이런 의미에서는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지만, 강변 둔치공원이나 산자락의 약수터주변에 설치된 체육시설등의 경우에는 그 설치된 위치의 거리로 인하여 쉽게 접근할 수 없다.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장애

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할 것이다.

이용상의 접근성이라 함은 특정 지점에서 해당 체육 시설까지 접근을 함에 있어 그 보도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은 기본적으로 목적지까지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턱이 없어야 하며 바닥도 평탄하게 마감되고 기울기는 1/18 이하(또는 경사율 5.5% 이하 혹은 경사도 3.2도 이하)로 되어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최소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점자 블록과 음성안내기 또는 점자표지판 등을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조합해서 설치하여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약수터 주변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장소적 접근성 및 이용상 접근성 모두에 반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되도록 시내의 도시공원을 잘 활용하여 그 속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을 많이 설치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한다면 접근성의 문제는 쉽게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허리돌리기 운동기구.

둘째, 이용상의 안전성 문제이다.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기구를 장애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들이 처음부터 디자인되어 출시되어 설치되었다면 안전성의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근린생활체육시설에 설치된 운동기구들은 장애인을 고려한 기구들이 아니다. 너무 높다거나 넓어서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무엇을 하는 운동기구인지 몰라서 잘못 이용하다가 다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둥근발판에 올라서서 허리돌리기 하는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발판이 자유자재로 돌아감으로 조금만 방심하면 한바퀴 회전하는 식으로 돌면서 내동댕이 쳐 질 수도 있다. 또한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운동기구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장이 났을 경우 적시에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운동기구의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위치해 있는 장소적 안전성문제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약수터 주변 또는 둔치공원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경우 운동하는 사람이 뜸할 경우에 어린이나 여성의 경우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체육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 CCTV라든지 관리인을 상주시키고 체육시설 주변에 비상호출을 하거나 119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용자의 행동특성에 따른 운동기구들을 개발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고려한 운동기구들을 개발하여 생활주변의 체육시설에 설치해



사용방법이 필요한 운동기구.

둔다면 장애인도 함께 비장애인들과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동질감을 가지고 당연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을 고려한 운동기구’라는 말에서 ‘장애인’의 유형은 아주 많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행동 특성에 따른 분류를 하면 상당히 많은 유형이 나올 것이다. 운동기구를 개발하는 측에서는 이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는 먼저 너무 높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휠체어에 앉은채로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는 최대 1.4m이며, 바닥면으로부터 30cm이하의 손이 닿지 않는다. 그리고 상지 사용이 가능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에 좌측 또는 우측 역시 30cm 이하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의 손이 닿는 곳 주변에 그 운동기구의 이름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의 점자를 부착시켜야 할 것이다.

그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은 체육시설마다 체육지도자 또는 운동기구를 다룰 수 있는 관리자를 두어 장애인이 운동을 하러 왔을 때 보조하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인적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더할 수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이는 안정성문제를 다룰 때 장소적 안전에 대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CCTV등 관리자를 두는 것과 같은 차원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조건은 3~4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접근성의 문제로서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져야 하고, 다음으로 안전성의 문제로서 운동기구 자체의 고장이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운동기구들에는 충분히 안전에 대한 사전경고 내지 사용 요령을 안내하여야 할 것이며, 장소적으로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되는 체육시설에는 CCTV 또는 그 외 방법시스템을 강화하여 운동을 함에 불안요소를 없애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의 행동특성에 따른 운동기구를 개발하여 보급·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등 근력이나 활동 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종류의 운동기구를 가지고 다양한 이용자에게 대응하려는 사고는 버려야 할 것이다.

기사제공

홍현근

지체장애이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 전동 스쿠터·전동 휠체어 구입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NEW**  
7월출시제품

의료용스쿠터 P Bar(TE-888NR) 소비자가-2,100,000원  
최고속도 8Km/h / 최대주행거리 완충전시 40Km

百歲童顏 100세 동안에서는  
차별화된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의료용스쿠터 TE-889NR 소비자가-2,300,000원  
최고속도 12Km/h / 최대주행거리 완충전시 25Km



전동휠체어 TE-PHFW-10 소비자가-2,090,000원  
최고속도 6~8Km/h / 최대주행거리 완충전시 25Km

글로벌 헬스케어그룹 대웅제약 가족, 百歲童顏 100세 동안 전국 가맹점에서 지금 즉시 구매가능!



## 긴급구호출동 및 전국 A/S 시스템

www.100age.co.kr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 차별화된 제품

- 대만 GMP업체 PIHSIANG MACHINERY MHG, Co, Ltd. 의 샵라이더
- 미국 FDA, 유럽 CE 인증마크 획득
- 최고속도(12km/h), 델타핸들, 고성능 배터리, 360도 회전일자 장착 (의료용스쿠터)

### 안전보장 A/S

- 긴급상황발생시 현장으로 30분내에 전문가구호출동
- 배터리, 타이어, 구난 서비스 무상제공
- 지역별 전문 A/S 센터 운영 및 신속정비서비스

### 대웅제약관계사

- 글로벌 헬스케어그룹 대웅제약의 관계사, 100세동안운영
- 전국 100세동안가맹점에서 전사판매 및 체험가능
- 이동보조보장구제도안내 및 1:1 맞춤건강상담 서비스제공

百歲童顏 100세 동안

제품 및 구입문의  
02-3016-6905~6

가/맹/점 서울 서초직영점 관악점 오류점 사당점 종로구점 서대문점 서남병원점 경기 분당점 단원점 수지점 고양점 구리점 파주제일점 파주점 하남점 인천 계양점 남동구점 송도연수점 부산 동래직영점 경남 경남지점 경주점 울산 울산지점 대구 대구지점 서문시장점 경북 칠곡점 상주점 영주점 전북 전주완산점 전남 광주점 목포점 여수점 장성점 충북 제천점 청주청원점 충남 당진점

# 정부, 하이패스 가격 인하 유도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의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27일(화) 민주당 전 현희 의원의 “장애인용 하이패스 장애인용 단말기에는 지문

인식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 장애인 하이패스보다 가격이 두배 이상 높으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장관은 “장애인들에게 드리는 혜택을 비장애인이

사용할 것을 우려해 이런 장치들이 생기는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제조업체를 통해 가격을 좀 내리도록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신청’ 의무 면제 행안부, ‘생활불편 민원제도 개선안’ 발표

내년부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주소 변경 시 신청해야 했던 ‘자동차세 감면신청’의 의무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12일(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무·주민생활

등 ‘40개 생활불편 민원제도 개선안’을 확정,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개선안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주소 변경 시 ‘자동차세 감면신청’ 의무 면제가 들

어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다가 주소 변경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바뀌면 매년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 장애인사업주에 보조기기 지원

### 4명 이하 고용 장애인사업주 해당

장애인근로자에게만 지원되던 보조공학기기가 앞으로는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에게도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 26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가 지원 신청 당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경우 사업주 자신의 작업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존 3월말까지 제출하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정부부문과 동일하게 1월말까지 제출하고, 제출한 고용계획의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존 고용계획 실시상황을 3월말까지 제출받아 전년도 장애인 고용이행 상황이 6월말 이후에야 집계되는 등 장애인 고용상황에 대한 파악이나 장애인 고용지원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부담금 신고·납부 제출 기한이 3월말에서 1월말로 조정되고 분할 납부 주기 역시 현행 3월말, 5월말 등 2개월에서 1월말, 4월말 등 3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개발원, 학술지 게재 논문 모집

### 장애인복지 관련 주제...11월 21일까지 접수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 이하 개발원)이 오는 12월 발간할 학술지 제2권 4호 ‘장애인복지연구’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한다.

논문주제는 장애인복지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내용이어야 한다. 단, 석·박사 학위 논문의 경우 타 학술지나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

는 게재가 가능하다.

원고분량은 초록과 참고문헌을 포함해 A4용지 25매 이내다. 투 고 방 법 은 이 메 일(krkim@koddi.or.kr)로 투고신청서(파일첨부)와 논문을 제출한 후 우편등기나 팩스로 투고 신청서의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원고 마감은 오는 11월 21일(월)까지이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

다.

한편 개발원은 장애인분야의 학술연구 동향과 새로운 연구성과를 소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 4회 ‘장애인복지연구’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02-3433-0711)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에이블뉴스〉

## 서울시, 장애인진단서·검사비 지원

### 지원자금 소진시까지...동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 시기가 도래해 재판정을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고 4만원에서 1만5000원까지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과 활동보조 신청 등에 소

요되는 진단비 및 검사비용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진단비와 검사비를 포함해 총 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 시, 차상위계층은 총 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청구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장애인을 진단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도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로 신청할 수 있다.

진단비 및 검사비 발급비용 청구는 장애인금 등을 신청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동주

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이들 지원은 자금 소진 시까지 실시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나 자치구청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3707-8472)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서울특별시 회장.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초 장애등록 신청자와 기존



# 경기, 의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강화’ 조례 발의

경기도의회는 송영주(민노·고양4)·서형열(민주·구리1)의원 등 도의원 39명이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0월 9일(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5년 단위의 광역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관내 노선버스에 대한 저상버스로의 대체 사업을 추진하고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 도입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시·군의 이동지원

## 65세 이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



경기도의회 모습.

센터를 연결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

하고 장애인 콜승합차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과 관련

해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군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 예방접종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환자가 2.6명으로 유행기준에 근접했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오는 11월 초순부터 무상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침예절,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관리, 평소 건강 생활을 통해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고위험군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조금이라도 독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광주시, 사회복지공무원 75명 추가 선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올해 사회복지공무원 75명을 추가로 신규채용 선발한다고 지난 12일(수) 밝혔다.

선발인원은 사회복지(일반) 71명, 사회복지(장애인) 3명, 사회복지(저소득층) 1명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만이 응시가 가능하도록 구분

모집하고 채용의무비율(장애인 3%, 저소득층 1%)을 초과해 장애인직렬은 4.0%, 저소득층직렬은 1.3%까지 확대 선발키로 했다.

응시자격은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1·2·3급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고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날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

해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돼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며, 시험일정은 오는 12월 10일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면접시험(3월 13일)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3월16일)할 계획이다.

응시원서접수는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에 직접 접속하거나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 링크해 접속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채용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4년 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대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총무과(062-613-2871~3)로 문의하면 된다.

# 제주, 아동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

## 12세 이하...동네 병·의원에서도 가능

이달부터 도내 12세 이하 어린이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우근민)는 10월 1일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12세 이하 아동이 병·의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할 경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접종비가 지원되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BCG(결핵), B형간염, DTaP(디피티.파상풍.백일해), 소아마비, MMR(홍역.볼거리.풍진), 수두, 일본뇌염, Td(파상풍.디프테리아) 등 8종이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8종의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준다.

제주도는 보건소 뿐 만 아니라 집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돼 접종

률 향상에 따른 전염병 예방은 물론 부모들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 67곳과 보건기관 17곳(보건소 6, 보건지소 11곳) 등 모두 84곳이다. 예방접종 의료기관은 보건소 홈페이지(<http://chc.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산, 장애인 보호시설에 ‘폴리스콜’ 설치

부산지역 장애인 보호시설과 특수학교에 경찰 직통전화인 ‘폴리스콜’이 설치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1일(화) 장애인과 관련 시설·학교의 근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폴리스콜’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폴리스콜은 위급 상황 때 일반전화와 연결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일종의 핫라인이다.

112신고센터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별도 질문

없이 곧바로 인근 지구대나 순찰차에 출동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시스템은 현재 부산 시내 편의점 100여곳에 설치돼 있다.

경찰은 폴리스콜을 부산 시내 장애인 보호시설 24곳과 특수학교 13곳에 모두 110여대를 무료로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폴리스콜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벌이는 한편 각종 사건·사고에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 폴리스콜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 칼럼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

## “장애인 보조견과 복지의식”



영화 ‘도가니’로 인해 세상에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어떤 범죄보다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이제 전 국민이 공감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장애인과 연루된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은 장애인의 인권이나 권리가 보장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다짐도 했을 것입니다.

영화 ‘도가니’의 장애인은 청각장애인 즉, 농아인입니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진술 내용과 변호가 정말 힘들다는 것이 재판에 참여했던 판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주장이며, 이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에 있어서 의사소통 수단은 수화, 수어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통역하느냐가 재판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주고 형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수화는 1,800~2,400단어까지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

니다. 법원에서 통용되는 소위 법률 용어는 정확하게 표현 안 되는 것이 농인 사회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성이나 애정표현 등 감정적인 단어는 단어조차 만들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통역 시 애로점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경우 갈로뎃 대학(Gallaudet University)에서 법률수화, 의료수화, 스포츠수화를 개발·보급하고 있고 심지어 법률수화는 전문 통역사 자격제도까지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각장애인이 가장 잘 아는 적합 직종 50여개의 직업수화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그 직업분야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것은 수화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이름하여 스마트 직종을 수화와 함께 개발·보급해서 농아인의 직업 창출까지 보장해주고 있는 미국이 부럽기만 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농연구, 영어로는 Deaf Study(데프스터디), 이 학과가 40여 개교에 개설돼 청각장애인의 문화나 언어, 의사소통 기법 등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학문적,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나사렛대학교와 한국재활복지대학에 수화통역학과가 있긴 하나 법률수화 등 우리 사회의 영역별 수화는 개발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가니로 인해 좀전의 처벌

이 손방망이라며 다시금 처벌 대상이 된 성범죄자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점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청각장애인과 함께 일하고 있는 건청인, 가르치며 생활하는 비장애인들과의 의사소통 문제, 작업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특히 장애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건청인이나 비장애인도 통역의 오류와 장애에 대한 몰이해로 장애인의 인권이나 내면적인 자아를 손상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장애인 전문가들의 인권 보장 또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시점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 독자투고

## 사랑하는 아들에게...

영국아!

얼마만에 엄마가 너에게 편지를 써보는 거니? 매일 쓰는 엄마의 일기장엔 너에 대한 기록이 더 많지만, 이렇게 영국이에게 직접 쓰는 것은 처음이네. 영국이가 직접 읽어 보았으면 좋으련만. 마음으로 읽어 주길 바랄게.

그러니까 1986년 6월, 어렵게 태어난 우리 영국이. 엄마의 기쁜 마음도 잠시. 너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앰블런스를 타고 큰 대학병원에 후송됐지. 누구의 잘못이었을까? 그때 영국이는 원인도 모르게 뇌가 손상돼서 울지도 못하고 온몸이 파랗게 질린 상태였어.

한 달이 넘게 병원생활을 하다 장애아란 낙인과 같이 엄마의 품으로 왔는데, 넌 엄마를 보자마자 젖을 달라며

가슴으로 파고들었어. 내가 엄마란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영국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그때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영국이는 모를거야.

6세부터 장애아동 전담 조기교육원에 보냈는데 영국이는 어설피게나마 선생님의 말씀도 알아듣고, 울동도 곧 잘 따라했어. 그런 이유로 엄마는 우리 영국이가 어찌면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 어쩌면, 그것이 엄마의 진정한 바람이었을지도 몰라.

시간이 흘러 영국이는 특수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지. 한 순간도 엄마랑 떨어진 적이 없던 넌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매일 대변을 옷에 묻히기 일쑤였어. 그래도 초등학교 댄 아무 탈 없이 잘 지냈

는데..

중등부 댄 웬지 모를 자해 행동으로 여러 학생을 괴롭히고 소리지르고, 하교 후 집에 오면 화풀이로 엄마의 머리를 잡아당겨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뽑히고, 팔을 물어 멍이 시퍼렇게 될 뻔 너를 버리려고도 생각했었어. 덩치도 크고 힘도 센 너를 엄마는 제압하기가 버거웠거든. 그래도 엄마는 인내심을 가지고 널 훈육으로 가르쳤어. 엄마의 마음이 통했던걸까? 넌 잘못했다고 빌었고 그런 널 안으며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영국이는 모를거야.

고등부 댄 수업도 생기고, 키도 커서 아까만해지고 큰 병 없이 학교생활도 무사히 마쳤는데... 학교생활과는 모른 것이 생소한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에는 Eltern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김영국 씨와 이연순 어머니

또 초긴장 상태였단다. 다시 학교에 간다고 때를 쓴 시간이 대략 1년, 처음으로 정신과 약까지 먹을 정도였지.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말귀도 제법 알아듣고 의젓해져 엄마는 너무나도 기쁘단다. 복지관에서 영국이를 모르는 선생님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고(강패), 귀여움 받고, 적응도 곧 잘하니 Eltern 그것만으로 만족이란다. 복지관 친구들과 현장학습을 다녀와 찍은 사진들을 볼 때, 우리 아들이 사회에 한발 한발씩 내딛어 사람들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는 뿌듯함이 밀

려온단다. 한편으로는 사춘기 시절을 그런 혼란스러운 속에서 보낸 널 엄마가 몰라준 것 같아 미안해한단다.

영국아! 이렇게 너에게 편지를 쓰니 엄마의 가슴에 담아있던 응어리가 사르르 녹아 내리는 것 같구나. 우리 식구 건강하게 잘 살자.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지금만큼만 생각하며 살자! 복지관에서 인사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지금처럼 어른스러운 영국이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편지 가끔 할게.

영국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 독자수기

본지에 게재된 수기는 지난 2011년 10월 19일(수)과 20일(목) 양일간 올림픽파크텔에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의 주관으로 개최된 『2011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서 '장한 배우자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신명자(46세, 여) 씨의 수기로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삶의 의욕'이 가득 담긴 작품입니다.

## “행복은 다가가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

신명자 (경기, 장한배우자상-보건복지부장관상)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황금 같은 색깔은 아닙니다. 알록달록한 수정 같은 색깔은 더욱더 아닙니다.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양탄자도 깔려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은 계단을 올라갈 때나 내려 갈 때나 어렵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두 글자는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고는 1995년 5월 어느 날 남편이 건축 일을 하다가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로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때 제 나이 27살 철모르는 어린나이에 닥친 일이라 너무나 황망하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그래도 친정 부모님 밖에 없어 아이들을 부모님한테 맡겨 놓고 저는 병원에서 먹고 자면서 남편의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보태보려고 부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병원에서 부업을 한다고 수근 대기도 하고 그러면 전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 해에는 왜 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던지요, 저희가 사는 집은 지하라서 조금만 비가 많이 와도 물이 넘쳐서 양동이로 물을 퍼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장

마철 비가 심하게 오던 날 집에 가서 문을 열어보니 모든 가전 제품들은 물에 젖어있고 텔레비전은 번개에 맞아서 작동도 안 되고, 방과 욕실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있고, 집은 물난리에 모두 망가져 있고, 아이들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그 때는 세상을 산다는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이 들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신랑 병간호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안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부업을 했고 퇴원해서부터는 낮에는 남의 집 청소도 다녔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며 홀서빙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저녁에는 남편의 병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힘들다는 내색도 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작 힘들게 했던 것은 일이 아니라 남편이 삶의 의욕을 잃어 자꾸만 약해져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서인지 항상 하는 말이 아직은 젊으니 쓸데없는데 시간낭비하지 말고 건강한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말은 하지 못하고 많이 외롭고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97년 10월 어느 날 큰

아들 태주가 감기에 걸려 치료를 받는데 아무리 병원을 다니고 치료를 받아도 낫지를 안았습니다. 동네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를 하지 못하니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대학교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께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시더니 일주일후에 결과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뒤에 찾아갔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검사한 결과가 좋지 않다고 너무 늦게 왔다고 그러시더군요.

그 때는 신랑도 많이 좋아졌고 별일 없이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 처음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아들 태주 나이 여섯 살 병명은 '악성 림프종양'이라는 희귀종양이라고 오래 살지는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멍한 상태로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난치성희귀종양이라서 약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각 대학교에서 우리아이 암세포를 배양검사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고 대학생들이



10월 19일 개최된 『2011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서 '장한 배우자상'을 수상한 신명자 씨가 자신의 수기를 발표하고 있다.

아이 옆에서 이곳저곳을 바느로 찌를 때는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 계단에 나와 울곤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치료를 한다고 해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 포기하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죽고만 싶었습니다. 힘들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보였으면 태주 누나 자경이가 제게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제가 엄마의 희망이 되어 드릴게요. 엄마 울지 말아요. 엄마 힘내세요”. 전 그때까지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내겐 아들이 아닌 딸도 있었다는 걸을. 우리 딸도 어리지만 힘들겠다는 걸 딸아이의 아픔도 이해하지 못한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는지요.

그날 이후 제 삶의 방향도 바뀌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난 두 아이의 자랑스러운 엄마이니깐요. 어떠한 경우에도 남편의 그 힘든 시기도 잘 견디어 왔으니깐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다며 의사 선생님께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고쳐 달라고 아이만 고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원망하지 않을 테니 할 수 있는데까지 해달라고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선생님은 할 수 있는데까지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같이

노력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항암치료를 받아 종양은 완치가 되었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강한 약물 치료를 받다보니 뇌세포가 더 이상 성장이 안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불행이란 단어는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오랜 약물 치료로 인해 콩팥이 안 좋아져서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합병증이 생긴 거였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세 번씩 신장을 투석하러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 가끔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제가 무슨 죄를 지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지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했죠. 그럴 때 마다 우리 딸 자경이가 들려주던 말을 항상 떠올리며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난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을 둔 엄마다 마냥 슬퍼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죽을 각오로 산다면 못할 것도 없다는 새로운 마음을 먹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은 멋진 날만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기대하라고 부정적인 생각보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만 하기로 했습니다. “행복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을 향해 나아갈 때 나를 향해 문을 열어 주는 것”을 신념으로 삼고, 전 제 삶의 패턴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장한 배우자상'을 수상한 신명자(왼쪽) 씨가 시상자인 김정록 중앙회장(가운데)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기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 삼성화재, 교과부와 ‘교육기부 MOU’ 체결

‘쌀화환 2톤’ 장애인 등 위해 기부

삼성화재는 10월 18일(화)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기부란 초·중등교육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해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을 교육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삼성화재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을 교육기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중 ‘찾아가는 애니카 교실’은 기존에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실시하던 교통사고 예방물품 지원사업을 교통안전 교육, 학교 통학로 통시설물 보수활동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특수 학급을 두고 있는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거

### 기부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시 : 2011. 10. 18 (화) 10:00



18일 삼성화재 본사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지대섭 삼성화재 사장이 MOU 체결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지역 중심의 특수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등 장애인식 개선사업과 관련한 교육기부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대섭 삼성화재 사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교통안전 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기부 활동을 적극 추진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공생발전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장애인 위해 땅 기부한 김충부 씨

퇴직금으로 땅 구입, 장애인 가정에 기부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국가유공자전국철도공상회 대구지부 김충부(72·사진) 지부장이 30년간 철도청에 근무한 뒤 받은 퇴직금으로 구입한 땅을 장애인 가정에 기부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 지부장은 성주군 수륜면 수성리의 땅 1천여㎡를 대구의 한 복지관의 지체장애인 가정에 최근 기부했다.

1966년 철도청 근무를 시작한 김 지부장은 1995년 명예퇴직을 하고 퇴직금과 대출금으로 땅을 구입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대출금을 모두 갚은 뒤 양도세 200만원과 증여



장애인 가정에 땅을 기부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 김충부 씨.

세 280만원을 부담하며 이 땅을 기부한 것. 슬하에 1남 3녀를 둔 김 지부장은 지난 추석 때 가족들에게 기부 의사를 밝혔으며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고 한다.

김 지부장의 땅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5년에 영천시 조교동 땅 2천㎡(시가 13억원)를 고향

마을인 조교동에 기부했고, 지난해는 영천 언하동 땅 2필지 182㎡를 영천시에 기부했다.

1969년 대구역 화물선에서 부상으로 오른쪽 다리를 잃어 의족을 하고 있는 김 지부장은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10년간 우동집을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6개 시·도 협회와 232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480만 장애인들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회원구분

일반회원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 ■후원금 납부방법

-지로, 자동이체 CMS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신청

- ① 전화신청 : ☎02)796-4280
-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 ■2011년 9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강시연, 강지민, 고인철, 곽은영, 김구환, 김이화, 김정빈, 김정태, 김진호, 김태우, 김행우, 김환경, 남용원, 민속박물관 박경일, 박소연, 박종형, 반형만, 선병욱, 송호율, 유재복, 윤주석, 윤채환, 이상돈, 이은정, 이태훈, 임채중, 정다운, 정선용, 정은연, 조태동, 주명희, 주승운, 주영래, 주영우, 최인준, 최재훈, 최준량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480만 장애인들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날말맞추기 CROSSWORD

	★1.도	자	2. 기			
	교		3. 적	토	4.마	
★5. 가					6. 구	7.걸
로						리
8. 수	족	9. 관				버
		절			10. 니	
	11. 기	엽		12. 합	체	



응  
모  
요  
령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및  
상품

공지영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광주의 한 청각장애인학교에서 일어난 실제 성폭력 사건을 모티브로 재구성한 영화.

#### | 가로열쇠 |

1. 도기(陶器), 자기(瓷器), 사기(沙器), 질그릇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점토에 장식, 석영 따위의 가루를 섞어 성형, 건조, 소성(燒成)한 제품으로, 소지(素地)의 상태, 소성 온도 따위에 따라 토기, 도기, 석기(?器), 자기로 나눈다.
3. 중국 삼국 시대에 관우가 탔었다는 준마의 이름.
6. 돈이나 곡식, 물건 따위를 거저 달라고 빌.
8. 물속에 사는 생물을 모아 놓고 기르는 설비. 물에 사는 생물을 그들의 생태 조건에 적합한 환경 속에서 기르고 진열하여 그들의 생태나 습성 따위를 여러 사람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11. 불꽃처럼 대단한 기세. ○○을 토하다.
12. 둘 이상의 것이 합쳐져서 하나가 됨. 또는 그렇게 만들.

#### | 세로열쇠 |

1. <지명> 일본 간토(關東) 지방의 남부, 도쿄 만에 면하여 있는 도시. 일본의 정치, 문화, 경제, 공업, 교통의 중심지이다. 일본의 수도.
2.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신(神)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4. <운동> 야구에서, 타자를 현혹하는 투수의 공.
5. 거리의 미관(美觀)과 국민 보건 따위를 위하여 길을 따라 줄지어 심은 나무.
7. <문학>○○○○여행기. 영국의 작가 스위프트의 소설. 여행가 ○○○가 향해 도중 폭풍우를 만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진기한 경험을 한다는 내용.
9. <의학> 관절에 생기는 염증.
10. <인명> 독일의 철학자·시인(1844~1900). 실존 철학의 선구자로, 기독교적·민주주의적 윤리를 약자의 노예 도덕으로 간주하고 강자의 군주 도덕을 찬미하였으며, 그 구현자를 초인(超人)이라 명명하였다.

#### 지난호 정답

	1★진	주			2 환	★희
	인				각	
	3 사	육	4 신		5 제	6 사
			채			마
		7 보	호		8 온	천
		자			달	
	9★수	기				

#### 9월호 정답

진수희

#### 당첨자

하미영 대구 북구 칠성동  
박준혁 경기 가평군 가평읍  
김정자 인천 동구 송림동

### 틀린크림찾기 DIFFERENT SEARCH



매달 정답자 세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쉬는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로부터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답례품

천연비누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천연화장품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틀린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만선이벤트!!



2011  
Escape from A Solo

# 솔로탈출 119

Sweet meeting, fall in love~ ♪

- ◆ 일시 : 2011. 11. 26(토)
- ◆ 장소 : 이룸센터 누리홀(B1)
- ◆ 참가대상 : 장애인 미혼남녀  
(20세이상 45세이하)
-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참조

[www.kappd.or.kr](http://www.kappd.or.kr)

※ 참가자 전원 소정의 기념품 증정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